

하나 圓滿한 輪廓과 어깨위까지 길게 드리워진 兩耳와 목에 둘러진 三道가 잘 어울려서 威嚴있던 尊容을 짐작케 한다. 法衣는 通肩으로 兩腕에 걸쳐서 내려진듯 하나 刻明치 않다. 兩足은 「씨멘트」 基臺로因하여 묻혔으나 兩脚의 區分은 確然하다.

光背는 舟形 學身光으로 現在는 上部가 破損되었으나 頂部가 寶珠形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全面에 磨損이 甚하나 火焰紋의 痕跡은 뚜렷하다.

兩肩과 腕部 및 頭像의 溫柔한 彫刻手法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現全高 一二五 頭高 三四 肩幅 三九 胸幅 一三三 光背廣 幅 六四 光背厚 一〇 佛像陽刻 二二이다.

佛像 上半身胸體...: 胸部 以下가 切斷되었는데 現在 그 以下部材를 收拾 못하고 있으므로 坐像인지 立像인지 그 形態를 알 수 없다. 現存部分으로 推定해 보면 佛像과 光背는 同一石으로 造成하였으며 尊像은 圓刻과 다름 없게 彫刻하였다. 相好 各部는 磨滅이 極甚하나 輪廓은 圓滿하다. 兩耳는 어깨위까지 길게 드리웠고 목에는 三道가 있다. 法衣는 通肩이며 兩肩과 胸部는 堂堂하고 溫柔하여 造成年代는 亦是 新羅下代로 짐작된다.

實測值(cm)는 現全高 五三 頭高 三〇 肩幅 四〇 胸幅 二四 光背厚 八 佛像陽刻 一八

現在 이 胸像은 矩形石柱위에 놓여 있으나 이石柱는 花崗岩 自然石으로서 그 石質이나 形態等으로 보아 아무런 關聯도 없는 雜石이다.

以上 三軀의 石佛을 簡單히 紹介하였는데 그 造成手法이나 各部의 樣式으로 보아 三軀는 共히 新羅下代의 所作으로 推定되었다. 그리고 現在 三軀는 그 形態가 各異하나 同一한 場所에 奉安되어 있고 寺址로 推定되는 곳도 隣近에 位置하고 있다. 그러므로 萬若에 이 三軀의 石佛을 移安해 왔다면 이 곳에서 모셨을터인데 그러고 보면 三軀中 藥師如來坐像을 中央에 奉安하고 他二像을 左右에 脇侍로 모셨던 이른바 「三尊像」 이 아니었던가도 推定되는 바이다. (一九六七年 十二月 調査)

### 金庾信墓와 金仁問墓

朴 日 薰

最近에 李丙燾博士의 論文 內容 一部가 紙上에 發表되어 傳金庾信墓를 第四十五代 神武王陵으로, 角干 金仁問墓는 金庾信墓로 推定하였기 때문에 깊은 關心과 注目을 끌고 있다.

筆者가 이 두 遺蹟에 對하여 史料와 地名과 現存한 遺物을 들어 小考를 試함은 問題의 是非를 가리는 데 參考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

慶州 松花山中腹에서 南方으로 延延히 起伏을 일으킨 丘陵背上에 新羅統一以後부터 發達된 陵墓의 外飾石物이 兼備된 傳金庾信墓와 簡素하게 自然石으로 周圍를 둘러 太宗 武烈王陵과를 比較할 때 같은 時代의 人物로서 君臣의 嚴格한 差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陵墓의 裝飾이 正反對로 되어 있으니 觀念的으로 金庾信墓의 確實性에 疑心하는 사람들도 許多함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해서 太宗武烈王陵 側近에 있는 二基의 墳墓中 하나가 金庾信墓로 斷定될 수는 없다. 이 二基의 墳墓는 아직까지 金陽과 金仁問의 墓로 傳하는 바 三國史記 列傳에 記錄된 바와 같이 金陽은 「陪葬于太宗大王之陵」이라 한데 根據한 것이고 다른 一基를 金仁問墓라고 하는 根據는 「窆于京西原」이라 한데서 온 것이니 西原은 王京에서 西쪽인 西岳平野를 가리키는 말로 곧 여기가 西原에 該當되니 이 根據를 顯覆하고 金庾信墓를 現在 口傳되는 金仁問墓에 比定할 만한 根據는 매우 稀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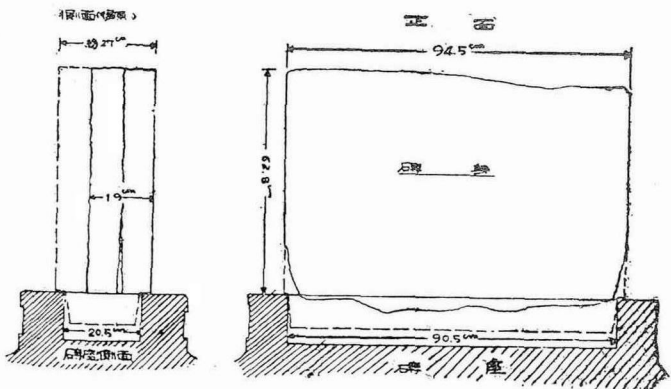
金仁問墓에 對하여는 또 하나의 重要한 考證資料가 있으니 一九三一年 이 墓에서 西北方 約二百m地點에 있는 西岳書院內 永歸樓 北쪽 築臺에서 發見된 上半部가 缺失되어 下半部만 남은 石碑가 注目된다. 碑身前面은 二十六行의 井間線에 階字體로 刻字되었고 碑文中 「祖文興大王」이란 句節이 보인다. 文興大王은 三國史記 武烈王元年 四月에 「追封王

考爲文興王」이란 記錄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角干 金仁問은 太宗의 第二王子임으로 이 碑는 곧 金仁問墓의 碑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 碑身과 太宗大王陵域에 있는 二基의 墳墓 옆에 있는 龜趺背上에 마련된 碑座와의 關聯이 重要な 問題가 된다. 卽 碑身の 全幅은 九四·五cm 이고 碑座孔의 長은 九〇cm 이니 碑身の 最下端의 축이 碑座孔에 들어가 碑身 兩側의 여백은 左右 二cm 餘가 碑座에 없지도 못 되었으니 李丙燾博士는 符合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꼭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碑座孔의 幅은 二〇·五cm 인데 現 碑身은 石質이 板子같이 격지가 일어 지금은 碑身前面과 割裂된 中間격지만 남아 一九cm 밖에 되지 않으나 이것이 元來부터 全厚가 아니고 背面을 形成한 또 한 겹의 石板이 分離된 痕跡이 있음으로 現在 最下端의 軸構造를 참작하여 復原하면 約七cm 厚의 石板이 割裂分離되었을 것임으로 全厚는 約二七cm 가 되어 左右 約三cm 씩 碑座위에 걸치게 되므로 이 石碑는 이 龜趺背上에 安置되었던 것으로 推定함에 疑心치 않는다. 이 碑片이 元來의 位置에서 破損되었기 때문에 書院 築臺築造에 한달 石材로 移動 使用된 것이지 결코 築臺에서 發見되었다는 事實에서 金仁問墓가 그 近處에 있었다고 假定하고 封墳도 平地化될 만치 적게 모았으리라고 推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先祖를 崇尚하던 時代에 何必이던 墳墓遺址에 精舍를 建造할 理가 없다.

또 假令 金仁問墓를 金庾信墓로 斷定한다면 南쪽에 毛只寺가 있어야겠는데 地形이나 方向을 보아도 伽藍을 造營할만한 位置가 없다고 본다. 傳金庾信墓의 所在에 對하여는 三國史記에 「出葬于金山原」이라 하였고 三國遺事에는 「毛只寺之北東向走峰」이라 하였다. 現在 金庾信墓로 傳해 오고 있는 松花山東腹 一帶를 金山 또는 「옛새무덤」이라 俗稱되어 오고 李朝時代 建造된 齊室로 金山濟라 하였다. 또 一七一〇년에 慶州府尹을 지낸 南至熏은 「太三角干 金庾信墓」란 碑를 세우고 裏面에 文武王朝에 有司를 시켜서 세운 公의 記功碑가 있었으나 없�지고 「東京婦儒皆智爲公墓過而敬之……」云云함으로 이대로 두다가는 陵谷이 變遷되면 모르게 되니 팔막한 돌을 다듬어 公의 墓임을 標識한다 하였다. 비록 記功碑가 없어졌다 하여도 口傳으로 傳稱되어 오는 山川의 名稱이 한때 國家的

으로 變亂이 일어 났다고 해서 口傳이 바뀔 理가 없는 것이다. 또 遺事에 이 는 毛只寺의 所在가 南쪽에 있어야 하는데 近年에 墓의 西南쪽 골짜기에서 靑銅製佛手가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바 이것이 事實이라 하면 여기가 毛只寺址일 런지도 모르고 또 여기가 아니면 墓의 南쪽은 바로 仙桃山기슭까지 넓은 平野를 끼고 있으니 아직 寺址를 確認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곳에 寺址가 있을 법도 하다.

한편 墓의 周圍에 花崗石으로 護石을 둘러 十二支方位神像을 配置하고 廻廊과 欄干을 設置함은 新羅統一기에 發達된 王陵의 制度에 準하여 造營되었음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問題를 삼고 있음은 妥當한 見解라고도 볼 수 있으나 當時 韓半島 東南方 山谷 一隅에서 建國된 新羅는 強大한 高句麗와 百濟의 끊임없는 侵害에 시달리다가 太宗의 英雄的인 計略과 名將 金庾信과 表裏가 되어 一擊 百濟를 殲滅시키고 文武王대 高句麗를 討伐하여 新羅版圖는 統一의 獨舞臺에 오르게 되자 金庾信은 同王 十三年에 七十九才를 一期로 돌아가자 그 後에 불 아간 文武王自身은 遺詔에 이른바와 같이 葬禮를 至極히 簡素히 하라고 마음 가짐을 한 大王이 彩帛 一千匹과 祖 二千石을 贈轉하고 軍樂 一百人을 動員케 하는 盛大한 儀式的 葬禮를 舉行토록 極盡히 待遇하였다. 그 後부터 신라는 아무런 外侵을 받지 않고 平和로운 世上에서 諸般文



金仁問墓碑身과 碑座實測圖

물이 盛하여져서 藝術의 黃金時代를 이룬 新羅人은 三國을 統一한 金  
眞信將軍을 英雄中の 英雄으로 追尊하였음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四十  
二代 興德王은 公의 偉大한 功勞를 더욱 追尊하여 興武王으로 追封함과  
同時에 封土를 整備하고 護石을 設置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十二支  
神像彫刻手法이 또한 美術史的 見地에서 初期의 것이 아니고 이 時代것  
으로 推定됨을 보아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 鵝溪影幀觀記

孟 仁 在

鵝溪 李山海의 影幀에 關해 最近 世間에서는 그 後孫들을 中心으로 매  
우 意義있는 物議를 일으킨 일이 있다.

이 影幀은 從來 德壽宮美術館에 收藏된 一幅만이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收藏當時의 記錄에 의하여 崔鳴吉의 影幀으로 傳稱되어 오다가 一九六  
八年度 四·五月 美術館의 省像高特別展을 觀覽한 鵝溪의 後孫이 鄉里  
禮山에 現存하는 다른 二幅의 鵝溪影幀과 同一系本임에 着眼 아울러 鄉  
里의 二本을 紹介하여 崔鳴吉影幀이 傳傳된 것임을 主張하게 되었다.



(圖 1)

이 것으로서 지금까지 지극히  
알려진 문제의 影  
幀은 모두 三幅이 되  
었고 그中 二幅의 現  
收藏者는 鵝溪의 後  
孫이며 그 所傳도  
매우 明確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二

美術館本의 收藏  
記錄카아드는 매우  
簡單하다.

「番號 五七二一、  
筆者 未詳崔鳴吉肖像  
畫、落款無、印章  
無、年代 未詳、購  
入年月日 大正三年



(圖 2)

九月三日, 納入人 李性燾, 價格 四〇圓昭和 一〇、三・一六下調査(圓印)」  
이 記錄으로 미루어 보면 崔鳴吉 傳稱은 納入人 李性燾의 主張으로 부  
터 비롯된 듯 생각되는데 納入年이 一九一四年(大正三年)으로서 合邦  
直後의 일이므로 多分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또 鄉里 後孫들  
의 回顧談으로도 二幅中 一幅의 逸失을 確言함으로 納入人 李性燾이 함  
부로 傳稱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鄉里에서의 傳聞으로는 元來 二幅을 改竊하여 分藏했던 것으로서 一  
幅을 倭政期에 保寧에서 紛失한 후 行方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  
다.

二幅의 摹本中 一幅은 문제가 된 이 美術館本이고 (圖 3) 이와 똑같은  
다른 한幅은 禮山郡 大述面 上頂里 三三四 李昇馥氏宅에 收藏되어 있고  
(圖 2) 이 兩者보다 오랜 古本 一幅이 大述面 方山里 一六九 李翰馥氏宅  
(宗家)에 收藏되어 있다. (圖 1) 後者 李翰馥家藏 古本에는 附屬本이었  
을 一幅의 畫像讚이 李昇馥氏宅에 傳來하나 古本의 摹本인 前三者는 아  
무런 典據資料가 없다. 李昇馥氏談으로는 前二者가 癸巳·甲午年의 摹  
本으로 傳承된다 하니 高宗 三〇年(一八九三)——三一年(一八九四)間의  
改竊로 一旦 推定되나 畫面의 狀態나 技法으로 미루어서도 그 以上 遡  
及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三

實際로 美術館本과 李昇馥家藏本(모두 絹本着彩)은 畫面의 크기가 똑